

# 조선대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전복 확대 논란

### 전남대에 이어 우수 인재 안정적 확보 위한 '공여지책' '전복 국한' 전북대 대조적...광주·전남 학생들 불이익

전남대에 이어 조선대까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조선대만이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광주·전남 학생들이 전북지역 학생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학 전문가들은 전북대는 전북지역에 S자사고가 있어 인재 모집이 원활해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만, 전남대·조선대는 인재 모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S자사고에는 광주·전남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한 탓에 지역인재전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9명 중 38%인 49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조선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2021학년도까지는 광주·전남으로 국한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전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인재를 폭넓게 구하고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올해부터 전북까지 확대한다"며 "광주전남 지역 대입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에는 53%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오래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전북으로 정했었다. 전남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5명 중 41%인 5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3학년도에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1%까지 확대한다.

이에 반해 전북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국한한 상태로, 의대 정원 142명 중 53%인 75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올 상반기

전남대를 찾아가서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고, 전북대를 방문해서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 전북대 관계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성적 상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서는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한 것이 못마땅하겠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입장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여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엄마... 아들이...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90세인 어머니가 면회 온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태풍 '찬투' 간접 영향 광주·전남 120mm 비

### 17일 낮 여수 해안 지날 듯

제 14호 태풍 '찬투'가 오는 15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대 12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14-15일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지나 17일 정오께 여수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찬투'의 최대풍속은 초속 39m로 '강'급 태풍이지만 중국을 거쳐 서해를 지나면서 최대풍속 초속 27m의 중급 태풍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15일까지 찬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5-80mm, 남해안 등 많은 곳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남해안에는 14일과 15일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나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서해남부 남쪽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진도와 완도, 해남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해상에 머물러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고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나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습결손 막자

### 전남교육청 대응책 마련 분주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별 교과에 따라 맞춤형 지도가 이뤄지는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걸쳐 980학급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학습 지원을 하는 '학습력 키움 3UP' 프로그램을 전체 248개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학력 향상 및 선택형 교과 보충을 해주는 '학력 레벨업' 프로그램을 일반계 고교 1-2학년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교대·사대생 멘토링제 운영 ▲위기 학생 치료 및 가족 상담비 지원 ▲유아, 실업계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회복 지원대책 마련 ▲원격교육 플랫폼 확대 및 에듀테크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

장성용 전남도교육감은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남의 품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놓치지 않고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 북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3연패' 조선대, 브랜드 평판 전국 20위·호남 1위

###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4차 산업 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인정

광주시 북구가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북구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전국의 우수한 공약과 정책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156개 기초지자체가 접수한 376개의 사례 중 최종 209개 사례가 본선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북구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자연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감소와 저탄소 실천을 위해 산단 친환경 제조혁신 및 마을 단위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정책 등 탄소중립 도시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그동안 도시재생, 안전자치에 이어 기후환경까지 3년 연속으로 구정 역점 분야의 성과를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43만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북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국기업평판연구소 9월 분석

조선대학교가 대학교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에서 전국 20위·호남권 1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대학교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진행, '대학교 브랜드 2021년 9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는 참여지수 122만 5524개, 미디어지수 72만2870개, 소통지수 31만 6156개, 커뮤니티지수 100만1167개로 총 326만 5717개의 브랜드 평판지수를 기록해 100개 대학교 브랜드 중 상위 20위에 올랐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눠 진행했으며, 대학교 브

랜드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미디어지수·소통지수·커뮤니티지수로 분석됐다.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위원이 진행한 채널평가도 포함됐다.

민영돈 총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대는 혁신과 변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건학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가치를 가진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 지수를 매달 측정해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학교 브랜드 평판지수는 2021년 8월 8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의 대학교 브랜드 100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추석

## 남원 사랑어장터

http://www.namwonlove.co.kr

###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